

『 구미시 대형소매점 현지법인화 촉구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08년 7월 24일

나. 청 원 자 : 윤종욱 외 5,271명

다. 회부일자 : 2008년 7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08년 8월 26일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소개의원 : 장 세 만 의원

나. 청원내용

- 대형소매점 3곳(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입점으로 인하여 구미의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황폐화 되고 있음
- 2007년도 연간 매출이 이마트 1,000억원, 롯데마트 1,160억원 홈플러스 630억원 등 구미 입점 대형소매점 3곳의 매출 2,790억원의 60~70%가 역외(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

- 이처럼 지역상권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투자과실만 채기고 지역공헌 활동을 외면하고 있는 외자유입 대형소매점을 대상으로 현지법인화,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지역생산품 입점과 판매 확대, 현지인력 고용확대 및 처우 향상, 지역은행과 전속 거래 등 '지역 공헌도' 중심의 강력한 행정력 집중으로 대형 소매점과 전통시장의 상생 추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 최근 현대백화점의 대구점 진출은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형태로 외자유통업 지방 진출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미 입점한 백화점과 대형소매점에 '지역 공헌도 높이기' 압력에 큰 자극과 모델이 되고 있음

현대백화점은 2010년 개점 예정인 대구점을 사실상의 현지 법인화 체제로 운영 대구에 별도의 자금팀을 두고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하고 500억 원을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 지역 중소기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대구점 건립비 3천200억원 중 2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를 적극 참여시켜 사업비 일부를 대구로 유입하고 고용과 세수 증대 및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는 지역친화적인 기업 경영을 약속한 상황임

- 광주신세계백화점 또한 현지법인화를 하여 자연스럽게 지역 친화경영을 통한 지역업체 입점 및 지역 생산품 판매와 사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대구시 대형소매점은 14만2천명당 1곳인데, 구미시는 13만명당 1곳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인 재래시장, 자영업자, 지방중소 유통업체의 황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향후 이마트

동구미점과 구미복합역사에 롯데마트가 들어설 경우 8만 명당 1곳으로 전국 최악이 될 상황임

- 이와 같이 지역 자영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면한 이마트 동구미점 입점과 예상되는 롯데마트 구미역점에 대한 ‘입점단계 현지법인화 지역여론 조성’에 중점 대응하고, 하반기 ‘대형소매점 지역공헌도 높이기 범시민 캠페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외자유입 대형소매점 대책의 핵심은 자금운용 재량권을 현지에서 행사하는 현지법인화로 “연간 2790억원(2007년도)에 달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이마트→‘구미 이마트’로, 롯데마트→‘구미 롯데마트’로, 홈플러스→‘구미 홈플러스’로 외지대형소매점의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를 촉구하고 입점 절차를 밝고 있는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예상 명칭) 등 신규입점 대형소매점에 대해서도 현지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 ‘사실상의 현지법인화’ 및 ‘지역공헌 경영방침 표방’을 필수 영업개시 조건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을 청원함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
- 「지방자치법」 제73조
-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나 명 철

- 구미시 관내에는 국내 대형마트업계의 '빅3'로 불리는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가 영업한 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의 위축, 동네 구멍가게의 폐업 등 갖가지 부작용이 이어져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이마트 동구미점과 롯데마트 구미역점이 개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구 40만 도시에 대형소매점이 5개소가 되어 8만명 당 1곳으로 전국 최악의 여건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재래시장, 자영업자, 중소유통업체 등의 기존 상권 위축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임
- 아울러 대형 소매점 2007년 기준 연간매출액이 2,790억원으로 60~70%가 역외(서울)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처럼 지역상권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투자과실만 챙기고 지역공헌 활동을 외면하고 있는 외지유입 대형소매점을 대상으로 현지 법인화를 유도하고,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지역생산물 입점과 판매 확대, 현지인력 고용확대 및 처우 향상, 지역은행과 전속 거래 등 '지역 공헌도' 중심의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형소매점과 재래시장의 상생 추진 및 지역 밀착 경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형소매점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 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대형유통업체들과 지역사회가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의견서 채택